

한국타이어, 작업환경 평가 역학조사

소음측정기 · 시료포집기 설치 유해정도 파악 ... 심혈관질환 요인 조사

한국타이어 직원들의 잇단 돌연사와 작업환경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환경 평가가 11월14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단 10여명은 11월14일 오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방문해 공장에 유해인자가 있는지를 비롯해 직원들이 유해인자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지, 노출수준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역학조사단은 공장 곳곳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는 한편 오후 2시부터 근무에 들어간 직원 일부(전체 직원 2000여명)의 허리에 공기 중 유해인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료포집기를 달았다.

역학조사단은 3일 동안의 소음측정 결과와 연인원 350-400명의 직원을 통해 얻은 시료포집 결과를 분석해 대전공장의 작업환경이 어느 정도 유해한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산업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 박정선 소장은 “직원들 대부분의 사인이 심혈관계 질환이었는데 심혈관계 질환은 단일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직업병과는 다르다”며 “유기용제 중독이나 진폐증과 같은 중독성 질환과는 달리 심혈관계 질환은 다양한 유발요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는 솔벤트 등 특이물질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통상 한국타이어처럼 한 작업장에서 집단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작업장의 환경이 다른 작업장보다 얼마나 나쁜가 등을 분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산공장의 작업환경 평가는 10월3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산업안전공단은 12월 중순까지 모든 역학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대전 보건의료연대와 대전 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 녹색연합 등 대전지역 16개 시민단체는 대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진행된 한국타이어 관련 조사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유족들에 대해서는 사장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2006년 5월 이후 한국타이어 직원 12명이 심장질환(7명), 폐암(2명), 식도암(1명), 간세포암(1명), 뇌수막종양(1명) 등으로 숨졌으며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안전사고로 숨졌고 화상사망자 1명은 자신의 집에서 보일러를 수리하던 중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숨진 것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15>